

고공행진 채소값...봄철 생산량 늘어 안정세 예상

1월 한파·2월 일조량 부족에 출하량 감소로 일부 가격 급등 봄무 재배면적 12%·조생종 양파 9% 증가 등 가격 하락 예상

지난 겨울 한파와 일조량 부족,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일부 채소류 가격이 급등했으나, 조만간 봄철 생산물량이 본격 출하되면 점진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주요 채소류 수급동향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무는 지난 1월 제주지역 한파 피해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 22.3%, 평년 대비 22.1% 줄어 가격이 높은 편이다.

전반적인 품위 저하로 저장량도 줄어 노지 봄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 상순까지는 가격이 다소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봄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2.0% 증가한 1041ha로 전망된다.

양파는 2022년산 중만생종 생산량이 전년 대비 25.4%, 평년 대비 15.6% 줄어 가격이 높은 상태다.

다만 3월 중순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2023년산 조생종 양파가 출하되면서 도매가격은 3월 중순 1kg당 1546원에서 3월 하순 1496원, 4월 상순 1453원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자가격도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농식품부의 예상이다.

올해 조생종 양파 생산량은 전년 대비 9% 늘어난 22만 내외로 전망된다. 6월부터 출하되는 중만생종 양파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3.3% 늘어난 1만5000ha 수준으로, 생산량도 전년보다

15.6%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마늘은 2022년산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 11.6% 줄어 들었으나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영향으로 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3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2만5000ha로 전년보다 4.0% 늘었고 생산량도 전년 대비 12.6% 증가한 32만8000t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자는 2022년산 노지 봄감자와 고랭지감자 생산량이 전년 대비 14.1%, 평년 대비 14.6% 줄었다. 저장 감자도 부족해지며 전년 대비 12.3%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올해 시설 봄감자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2.2% 늘었고, 기상 양호로 4월 중순부터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비축감자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자 가격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감자 생산량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는 노지 봄감자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9.0~1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택소는 1월 하순 한파와 2월 중순 일조시간 감소로 출하량이 줄며 가격이 올랐다.

3월 중순 이후 기온 상승과 오이, 애호박 등의 출하량 확대로 가격이 빠르게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배추의 경우 겨울배추 생산량이 전년 대비 12.8%, 평년 대비 4.4% 증가해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다. 5월 초까지 출하되는 겨울배추 저장량도 전년 대비 늘어 당분간 낮은 가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봄배추 재배 면적은 작년과 비슷한 3710ha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채소별 수급 상황에 따라 비축물량 방출, 할당관세 적용, 조기출하 유도 등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이밖에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평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품목을 1주 단위로 선정해 1인당 1만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 영암군 연합사업단 산지유통 평가서 전국 최고점

마케팅 실적·농가 조직화 금액 증가

농협 영암군지부(지부장 임정빈)는 지난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수산물)가 발표한 전국 '산지유통 종합평가'에서 농협 영암군 연합사업단이 전국 최고점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전년 영암군 연합사업단 통합마케팅 실적은 전년 대비 약 17% 증가한 332억, 농가 품목별 조직화 금액은 약 37% 증가한 226억을 기록했다.

농협은 전국 최고점 배경에는 영암군 대표브랜드 '氣(기)프트' (gift)를 앞세운 무화과와 고구마 등 영암 주요농산물에 국내 수요처 공급량 확대와 일본, 대만, 홍콩 등 수출 확대 등을 꼽았다.

임정빈 지부장은 "이번 성과는 영암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내 농협의 사업참여 확대, 연합사업단의 공격적인 마케팅의 3박자가 만들어 낸 결과"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쌀 수급안정·적정 생산 총력



RPC 광주·전남운영협의회 정기총회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최근 농협 RPC(미국종합처리장) 광주·전남운영협의회 조합장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작년 협의회 사업결산보고와 2023년 사업계획 안건을 승인하고, 앞으로 2년간 협의회를 이끌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했다.

신임 협의회장에는 김경채 조합장(해남 황산농협), 부회장 이동현 조합장(나주 동강농협), 감사는 조성문 조합장(고흥 흥양농협)이 선임됐다.

참석자들은 전남 쌀 가격지지와 판매확대, 식량 공급기지로서 농협의 역할을 노력하고 올해 전남 쌀 적정생산 추진을 위해 농협의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김경채 신임 협의회장은 "코로나 중식을 눈앞에 둔 지금이 쌀 소비 확대를 추진할 최적의 시기"라

며 "광주전남RPC운영협의회가 광주·전남 쌀의 위상을 높여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탁 본부장은 "농협RPC광주·전남운영협의회는 작년에 발생한 쌀 수급불안정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큰 역할을 보여줬다"며 "전남농협은 쌀 적정생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남 쌀의 수급안정과 가격 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도농상생 금요직거래장터' 개장 협의회 개최

농협 광주본부, 품목 선정 등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최근 '2023년 도농상생 금요직거래장터' 개장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고성신 본부장과 광주시, 광주지역 15개 지역 농·축협 판매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오는 14일부터 매주 금요일 개장하는 도농상

생 금요직거래장터의 운영계획 및 품목 선정과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농협 광주본부는 이번 장터를 통해 광주지역 15개 지역 농·축협의 조합원들이 생산한 우수 농·축산물과 및 농협계통에서 취급하는 가공식품 등 직거래를 통해 시중가보다 최고 10~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어촌공사, '선임대-후매도사업' 모집 연장

만 39세 이하로 조건 완화 접수 1개월 연장 28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 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선임대-후매도사업'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모집 기간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대(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신규로 선정된 창업농을 포함해서 만 39세 이하 청년농(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으로 신청 자격 조건을 완화해, 오는 28일까지 접수 기간을 약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접수가 완료된 후 사업 대상자 지원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5월 19일까지 대상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조건 및 지원 농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지 소재지의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접수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삼겹살·한우 40% 할인...광어회는 '반값'

롯데마트 창립 25주년 행사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오는 12일까지 온·오프라인 모든 채널에서 창립 25주년 기념 2주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통합 소싱을 통해 할인 폭을 키웠다.

엘포인트 회원에게는 국내산 삼겹살과 목살을 40% 할인한다.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은 올해 3월 기준으로 지

난해보다 10.3%가량 상승했지만, 롯데마트는 180t을 사전 확보하고 직접 가공으로 유통 단계를 축소해 원가 경쟁력을 높였다.

1++(9)등급 한우는 40%, 갈비찜용 소고기는 50% 할인한다.

수산물에는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수산대전 행사와 연계해 반값으로 선보인다.

광어회는 점포당 하루에 100팩씩 한정으로 반값에 판매하고, 제주산 은갈치와 국산 오징어 등은 40% 저렴하게 판매한다. /김민석 기자 mskim@

싼
지분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대인동
신안동 **상업용지, 매매**

대인동 - 156평, 신안동 - 176평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특, 변경가
문의. 010-3605-5000